

진실과 정의를 국민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발간사>

‘3만 2천여 명의 군경 합동병력이 전국 5700여 개의 사찰에 난입해 1700여 명에 달하는 스님들을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 성스러운 종교 교단을 상대로 국가권력이 자행한 전대미문의 폭거인 ‘10.27법난’의 개요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만행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입니다.

1980년 10월27일, 무려 1700년 동안 한국의 정신을 키우고 민족의 슬픔을 다독여온 우리 불교는 일개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매도되고 말았습니다. 민심을 담아내지 못한 국가권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혹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식인과 불교계의 노력은 뜨겁고도 올곧았습니다. 또한 세월의 무게에 약해지지 않고 비로소 2008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내어, 근 30년 만에 끔찍한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외려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있는 실정입니다. 명예회복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을 뿐, 정작 명예회복의 내용이 부실한 탓이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정당한 요구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자칫 10.27법난의 진상도 축소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형편입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연말 법난 당시 종단 소속 스님 전원인 9853명의 스님을 법난 피해자로 간주해 명예회복을 신청했습니다. 여전히 가려지고 묻힌 것이 많은 법난의 면면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사부대중의 여론을 받아들인 조치입니다.

본종이 주최한 10.27법난 독후감 공모전도 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펴낸 법난 자료집 역시 화두는 진실입니다. 실제로 보안사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한 스님들의 증언,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법률 제정의 모태가 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담았습니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참상을 통해 10.27법난이 왜 법난(法難)인지보다 많은 국민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법난의 진상규명을 발원한 까닭은 단순히 불교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진이고, 앞으로의 불교는 언제나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는 엇나간 역사의 물길을 되돌리고, 과사현정(破邪顯正)을 앞당길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